

디즈니+ 친숙함 vs 넷플릭스 PD파워 vs 티빙 확장판

디즈니+ '런닝맨' 스펠오프 콘텐츠
넷플릭스 조효진·김태호 PD 신작
티빙, '러브캐처 인 서울' 독점공개

가히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예능 전쟁'이다.

최근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글로벌 OTT가 잇따라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를 오리지널 콘텐츠로 내놓던 OTT들은 이용자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예능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예능 콘텐츠가 유료 가입자를 늘리는 데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이다. 디즈니+, 넷플릭스, 티빙이 비슷한 시기에 '런닝맨:뛰는 놈 위에 노는 놈', '신세계로부터', '러브캐처 인 서울'을 각각 내놓으면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각기 다른 전략을 내세워 유료 가입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디즈니+

12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는 첫 오리지널 시리즈로 SBS '런닝맨'의 스펠오프 콘텐츠 '런닝맨:뛰는 놈 위에 노는 놈'을 내놨다. 11년째 방영하며 시청자에 익숙해진 '런닝맨'에 기대 플랫폼을 알리겠다는 의도이다. 스펠오프는 처음인데다 이미 '런닝맨'이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권 국가에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해 국내외에서 호기심 어린 시선을 잡아끄는 데 성공한 분위기다.

가수 김종국, 방송인 지석진과 하하 등 '런닝맨'의 주요 출연자들이 그대로 등장해 이룸표 뜰기 등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다양한 게임을 벌인다. 12일 공개한 첫 회에서는 더보이즈, 온앤오프, SF



유료 가입자 확보를 위한 OTT 예능 콘텐츠 경쟁이 뜨겁다. 디즈니+(플러스)가 첫 오리지널 시리즈로 선보인 '런닝맨:뛰는 놈 위에 노는 놈'을 비롯해 넷플릭스의 '신세계로부터', 티빙의 '러브캐처 인 서울'이 맞부딪치고 있다. (위부터)

9. 에이티즈 등 최근 활발히 활동하는 10개 그룹 아이돌 멤버들을 등장시켜 화제물기도 했다.

●넷플릭스

20일 공개하는 '신세계로부터'는 SBS '패밀리가 떴다' '런닝맨' 'X맨 일요일이

좋다' 등을 연출한 조효진 PD의 신작이다. 조 PD는 2018년 넷플릭스가 처음 내놓은 자체 예능 콘텐츠 '범인은 바로 너' 시리즈를 만들어 1월까지 3편을 선보였다.

'신세계로부터'는 가수 이승기·은지원, 슈퍼주니어 김희철, 엑소 카이, 방송인 박나래, 연기자 조보아 등이 세트에 구현해놓은 가상세계에서 각종 게임을 벌이는 과정을 담는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달라지는 결말이 재미를 안긴다. 이승기와 은지원 등은 17일 "온라인 게임 같은 설정이 다른 방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 있다"고 자신했다. 조 PD는 "해의 이용자로 충분히 공감할 요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MBC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으로 잘 알려진 김태호 PD의 신작도 내놓는다. 12월11일 공개하는 '먹보와 털보'이다. 가수 비와 방송인 노홍철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행 콘텐츠다.

●티빙

운용사인 CJ ENM의 방송프로그램을 콘텐츠화해 독점 공개하고 있다. 19일 선보이는 '러브캐처 인 서울'이 대표적이다. 2018년과 2019년 엠넷의 시즌1·2에 이은 시즌3으로, 이번에는 티빙으로만 공개한다. 비연예인 남성 5명과 여성 4명이 사랑과 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 가치가 무엇인지 추리하며 러브라인을 그리는 콘텐츠이다. 앞선 시즌은 씬 예능의 소재와 추리 요소를 섞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tvN '놀라운 토요일'의 포맷을 빌린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도 현재 시즌2를 준비 중이다. 1월과 6월 각각 공개한 '여고추리단' '환승연애'의 제작진도 빠르게 시즌2 제작을 결정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모든 답이 정답이길” 연예스타들 수험생 응원



솔지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17일 연예스타들이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전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수능일은 출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긴장하지 말고 공부한 만큼만 딱 보여준다고 생각해 편하게 보시고 오시라”며 응원했다. 가수 솔지는 ‘거위의 꿈’을 부르는 영상으로 수험생들을 위로했다. 뉴이스트와 세븐틴, 프로미스나인은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하라”고 말했다. 그룹 SG워너비의 김용준은 “(수험생)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답이 다 정답이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문제도 술술 푸시고 긴장도 푸시라고 휴지를 준비했다”며 두루마리 휴지를 수줍게 내어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정호연, 브랜드피트 에이전시 CAA와 계약



정호연

'오징어게임'의 주역 정호연이 미국 에이전시와 손잡고 해외무대 진출을 노린다. 17일 미국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정호연은 미국 대형 에이전시 CAA와 계약을 맺었다. CAA는 할리우드스타 톰 행크스와 브랜드 피트 등 배우들과 비욘세, 저스틴 비버 등 팝스타 등을 보유한 에이전시이다. 정호연은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인기로 힘입어 CAA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모델로 데뷔해 '오징어게임'을 통해 연기에 도전한 그는 최근 글로벌 브랜드 루이비통의 글로벌 앰버서더로도 발탁됐다.

김유정, 창덕궁 ON 달빛기행 내레이션 맡아



김유정

연기자 김유정이 창덕궁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도사가 됐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17일 “김유정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단의 ‘궁은 프로젝트, 창덕궁 ON달빛기행’에서 내레이션을 맡는다”고 밝혔다. ‘궁은 프로젝트’는 가상현실(VR) 등을 통해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내레이터 김유정은 창덕궁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며 함께 산책하는 분위기로 체험자들을 이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17일부터 시작, 2주 동안 수~금 오후 2시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김준수, 12월 코엑스서 오프라인 콘서트



김준수

가수 김준수가 2년 만에 연말 대규모 오프라인 콘서트를 연다. 김준수는 12월17~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 D에서 '2021 시아 발라드 & 뮤지컬 콘서트 위드 오케스트라 Vol. 7(XIA Ballad & Musical Concert with Orchestra Vol. 7)'을 펼친다. 17일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가 지난해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한 공연을 이번에는 대면으로 연다”고 밝혔다. 김준수는 2012년 이후 매년 연말 발라드와 뮤지컬 넘버를 중심으로 공연을 선보여 왔다.

‘신사와 아가씨’ 추가확진자 없어 촬영 재개



신사와 아가씨

16일 일부 스태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촬영을 중단했던 KBS 2TV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 제작진이 17일 촬영을 재개했다. 드라마 출연진과 제작진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야외촬영을 이어갔다. 한편 24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새 드라마 '학교 2021'의 주연 김요한과 현재 방송 중인 KBS 1TV 일일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의 윤다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유재석 영입한 유희열, ‘안테나 몸집 키우기’

모회사 카카오엔터에 70억 투자
1377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도
유재석도 유상증자 참여 ‘눈길’
‘우당탕탕 안테나’로 매력 어필

가수 유희열이 연예활동과 사업의 두 영역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실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소속사 안테나의 대표로서도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17일 안테나의 모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따르면 유희열과 유재석은 최근 카카오엔터의 주주가 됐다. 10월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유희열 등 35명을 대상으로 53만9957주(1377억5167만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했다. 유희열은 70억원을 투자해 2만7438주(지분율 0.07%)를 확보했다. 유재석의 투자 규모와 지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희열은 유재석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석은 평소 “지인과 돈 문제로 절대 얹히지 않는다”고 밝힌 소신을 깨고 “유희열 대표에 대한 신뢰와 파트너십”으로 투자에 참여했다. 유재석은 이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만료한 뒤 여러 대형 기획사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2013년 ‘무한도전’ 등에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쌓은 유희열의 손을 잡았다.

유희열은 이를 시작으로 최근 소속사의 개성을 살리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여년 동안 함께 한 루시드폴과 정재형을 비롯해 페퍼톤스, 박세별, 정승환 등 소속 가수들과 활동해온 그는 최근 카카오TV 예능 콘텐츠 ‘우당탕탕 안테나’로 이들의 친근한 매력을 전하고 있다. 17일에는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와 전속계약하기도 했다.

방송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09년 이후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12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12일 JTBC



2013년 MBC ‘무한도전’ 이후 호흡을 맞춘 유재석과 유희열(오른쪽). 사진은 두 사람이 2015~16년 진행한 JTBC ‘슈가맨’의 한 장면. 사진제공 | JTBC

C 예능프로그램 ‘다수의 수다’를 선보였다. 12월6일 음악 경연프로그램 ‘싱어게인 2’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앨범 킹’ 세븐틴, 열도정복 스타트

미니앨범 200만장 판매 오리콘 1위
12월 日 싱글 발표…월드투어 시동

그들 세븐틴이 일본 정복에 나선다. 다음 달 일본에서 스페셜 싱글을 내고 현지 팬들과 만난다.

세븐틴은 12월8일 첫 겨울 노래인 ‘아이노치카라’를 일본에서 선보인다. 춤과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의 힘이 있다면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국내에서 발표한 여섯 번째 미니음반 타이틀곡 ‘홈(HOMIE)’과 정규 3집 수록곡 ‘스냅 샷’의 일본어 버전도 담는다. 이에 앞서 18일 온라인 콘서트 ‘파워 오브 러브 콘서트’를 일본 버

전인 ‘저팬 에디션’으로도 공개하고 열기를 띄울 계획이다.

세븐틴의 일본시장 공략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달 발표한 아홉 번째 미니앨범 ‘아타카’(Attacca)로 최근 일본 오리콘 최신 차트의 데일리 앨범 랭킹(5~7일자)과 주간 앨범 랭킹(15일자)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다. 이를 통해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25만장 이상)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시장 확장에 나서며 무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최근 케이팝 스타들이 잇따라 대면으로 월드투어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재개하면서 세븐틴도 내년 초부터 월드투어의 시



12월 일본 싱글 이후 월드투어에 나서는 그룹 세븐틴. 사진제공 | 플레디스

동을 건다.

세븐틴은 2015년 5월 데뷔해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그리며 방탄소년단을 잇는 탄탄한 팬덤을 자랑해왔다. 밀리언셀러의 음반 판매량도 이를 보여준다. ‘아타카’의 200만장을 포함해 데뷔 이후 누적 앨범 판매

량이 1000만장을 넘어섰다. 6년 6개월여 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정규 3집 ‘업 오드’(An Ode)부터 ‘행가래’, ‘세미콜론’(Semicolon), ‘유어 초이스’(Your Choice) 등 모두 다섯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을 썼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